

사랑주기 소감문!!

No.

Date. / /

사랑주기라는 행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어깨를 주물러 볼수 있었고 칠판에 팔을 물려 글을 쓰는 것이 힘든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저희가 대신 두업을 해드릴 눈 없지 만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알려준 것의 뿌듯함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는 장난으로 꺾꺾 눌러 시원(?)이 아프게 했지만 그만큼 저희는 정이라는 것이 더욱 깊 어지고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 기분도 좋았습니다. 몰작히 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한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친구들이 시원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도 뿌듯함을 더 욱 느낄것 같습니다^^ 이번기 선생님들에 어깨를 주물러 본 결과 선생님들분한 분 마다 어깨가 딱딱했습니다. 시원해하시는 것을 보았때는 좋았나 아파하 시는 것을 보았때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몰작히 과제 두행지만 해도 되지만 제까 선생님들의 어깨를 주물러본 결과를 알려드리고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주물르고 과제두행지에게 싸움을 받았지만 받았지만 친구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더 주물러드었습니다. 신계동쌤 - 저희가 주물러드리는게 아픈신 것 같았습니다!! 김성희쌤 - 칠판에 팔을 많이 물려진 것 같던데 주물러 드리는 것을 거부하시고 저희보고 '수업잘들으면 해줄게'라는 말이 싫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를 위해 하신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근이쌤(미슬쌤) - 어깨가 많이 뭉치셨습니다!! 등도 주물러드리면서 두피 아까지까지 해드렸는데 시원해하시는 걸 보고 뿌듯했습니다. 윤지연쌤 - 주물러 드리는게 많이 뭉 치지신 것 같았지만 뭉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고인아쌤, 박지은쌤, 허미화쌤, 오 혜정쌤분들!!! 어깨 더 안뭉치도록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친구들!!! 너희들이랑 원하 똑똑해지고 정돈싸우고 많이 웃어서 너무 좋았고 그때만큼은 행복했어!!! 너희 가 나 주물러준 느낌도 잊지 않게. 너희도 내가 주물러준 느낌을 잊지알아주라!!!! 선생님, 친구들~ 사랑합니다~~ 응원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주기를 하면 느낀점

4 내가 사랑주기를 하며 느낀점은 비록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안마를 해주거나 해 드키면서 한발짝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도 친했던 아이들이지만 이걸 하면서 같이 즐겁게 웃을 수 있느냐 더 친해진 느낌이라니까 선생님들께 해드릴 때는 선생님들의 딱딱하게 굳은 어깨 때문에 해드릴 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때는 뭔가 뿌듯했다. 아직은 선생님들과 어색하지만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 친구들과 서로 해주며 많이 속쓰리워 하기도 했지만 해줄면서 느낀이 같은 소리를 내는 친구들을 보며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매일 학교에 와서 책상기만 계속 앉아 있는 친구들의 어깨는 나에게 맞지 않게 굳어있는 어깨가 꽤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잠시라도 어깨를 주물러 줬으니 좀 풀렸기를 바란다. 내가 해준 선생님들과 학생들 말고도 다른 많은분들에게는 안마 대신 서로 그냥 웃으며 대화를 해야겠다. 모든 쌤들과 친구들이 사랑합니다.

사랑주기를 하면서...

나는 사랑주기를 처음 신청하고 종료를 받았을 때에는 "괜히했다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아끼를 안마해드리고 있는 나를 상상했다.

돌직박 얼굴이 달아오르며 아... 어떻게지를 연발했다

그래서 사랑주기에 마감인 금요일 전날인 오후 사랑주기를 시작했다.

처음의 행복감이었다.

쭈뼛쭈뼛... 들어가서 사랑주기요... 라고 선생님께 한마디를 건넸다.

돌직박 비빔신데 구질아하살까 걱정이었지만, 밖에 온여 받아주셔서 복직없이 안마를 해드리던것 같다 안마를 하면서 느낀점이 있다.

선생님들은 고생을 많이하신다는 것이다

왜냐 내가 살펴보니 않아서 큰데지만 어깨는 주물러보니 딱딱하게 굳어진 선생님들이 많았다

그래서 수업시간이 생략났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시고 소리높여 조용히 하라는 소리.

그때 나는 무엇을까? 하는 생각과 아제 수업을 열심히 들이서 선생님의 딱딱한 어깨에 조금 보탬해드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사랑주기에 형사는 나에게 여러가지 느낀점을 줬! 지금까지 행사중 가장 느낀점이 많았던 행사 같다

소감문

이러한 대회가 실시되어 참여를 하였다 처음에는 사랑을 나눠주기 보다는 재미있을 거 같아서 참여하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보람을 느낀 것 같아서 좋았다. 나의 첫 대상이 배영근 선생님이었는데, 손을 따뜻하게 해서 하는 거였는데, 처음이라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나니, 기쁨은 보였지만 재미도 있고 해서 탄력을 받은 듯이 친구들을 해주었다. 친구들을 해주는 데, 간지럼을 타는 친구가 있어서 첫날에는 그 친구를 해주지 못하였다. 항상 시끄러워도 너그럽게 봐 차근 차근 해오다 보니, 나이트인 선생님 위주로 하게 되었다. 항상 시끄러워도 너그럽게 봐 주시는 선생님들의 어깨를 주물러보면 단단한 어깨를 풀린 듯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수행을 하다 보면 뒷인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웃으며 아제수행을 하는 것이 된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웃으며 아제수행을 하는 것이 된다. 왠지 모를 백도움이 마음에 환하게 남는 것 같았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받으려는 것도 절차에 맞춰주고, 11월 8일에 끝마치게 되었다.

2학년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대회가 생겨났다. 그래서 여러 대회에 참여하였는데, 상품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마음이 최우선인 것 같다. 이러한 대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우리학교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걸 보면 감사해서 해드렸던 이 대회를 모르는 것 같았지만 흔쾌히 해주셔서 보람을 느꼈다. 이 대회를 내년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대회가 생겨난 이유는 학생과 선생님간의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해 생긴 것 같다.